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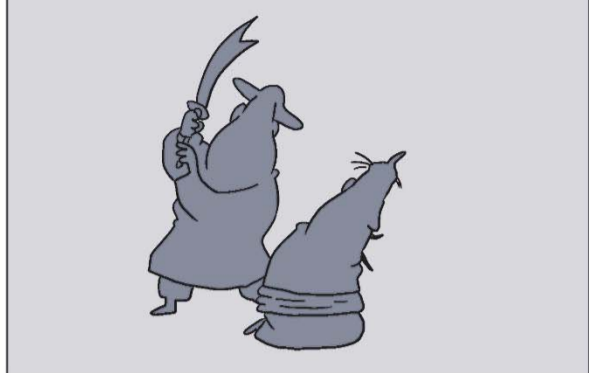
무엇보다 관북 지역은 조선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었다.



명천현(明川縣) 이북 여덟 고을이 순왜 반란군의 자치 지역이 됐고, 가토의 왜군은 길주 이남에 주둔하는 형국이 됐는데



함경도에 부임했던 장수와 수령 등 관원 태반은 반란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사로잡혔다.



농민이 목숨까지 걸고 구한 청년 관원은 함경북도 병마평사(줄여서 북평사) 정문부(鄭文孚)였다.



평사(評事)는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정6품의 문관 참모로, 국초에 병마도사라는 이름으로 각 도에 있다가 임란 무렵에는 양계에만 존속한 관직이다.



반란군 지역 각 처에 숨어있던 관원들과 뜻있는 지역 의사들이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결집했다.



지위고하, 나이를 막론하고 그들은 28세의 북평사 정문부를 만장일치로 대장으로 추대했다.



정문부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정문부는 서울 사람으로 1588년(선조 21) 식년시 문과에 아원급제(2등)한 수재였다.



문관이면서 이례적으로 한성부참군이라는 무관직으로 관직을 시작했는데 필력도 있었지만, 군사적 식견과 전략이 탁월했다.



북병사의 참모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다.



정문부가 깃발을 높이 들자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왜적과 반란군의 소굴이 된 함경도에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 회에 계속)